

2022. 10. 31.(월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2년 10월 31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

주택정책과장	공병엽	2133-7010
--------	-----	-----------

청년주거안심팀장	이승헌	2133-7701
----------	-----	-----------

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: 5쪽

담당자	김미연	2133-7705
-----	-----	-----------

서울시, 올해까지 '청년월세' 6만 명 지원... 97% '주거안정 도움됐다'

- '20년 5천 명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6만2천 명 월 최대 20만원, 10개월 지원
- 7,428명 대상 설문... 주거 97%, 경제 94%, 생활 98% 모든 측면 부담 덜어
- '월세 연체 경험'도 줄어... 국비 지원받아 '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' 신청 중
- 시 "모니터링·자문 등 내실 있는 운영으로 청년 주거비 부담 지속 덜어줄 것"

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 서울시가 '20년부터 시작한 '청년월세 지원' 사업을 통해 올해까지 6만 명이 넘는 청년이 주거비 부담을 덜 것으로 나타났다.

서울시가 지난해 '청년월세'를 지원받은 청년들을 설문조사 한 결과 97%가 '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받았다'고 답했다. 시는 지난 3년 간 서울 시내에 거주하는 총 6만 2천 명의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, 10개월 간 월세를 지원했다.

○ '20년 5천 명을 시작으로 '21년 2만 7천 명(상반기 5천, 하반기 2만 2천 명)에게 지원했고, 올해는 3만 명을 선정하여 현재까지 1차 지원금이 지급됐다.

- 청년월세는 '20~'21년 상반기까지는 중위소득 120% 이하를 대상으로 모집했으나 '21년 하반기부터는 더 폭넓은 지원을 위해 중위소득 150% 이하로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.
- 서울시가 지난해 하반기 청년월세 수혜자 7,4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, 5점 만점에 '4.67점'으로 월세 지원을 통해 청년이 느끼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 응답자들은 ▲주거 97.98% ▲경제 94.34% ▲생활 98.46% 부문에서 모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했다.
 - 시는 작년 8월부터 월세를 지급하기 시작해 올해 4월 지급이 모두 완료된 청년을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만족도 등 설문조사를 진행('22.5.25.~6.15.)했으며 응답자의 평균 소득은 164.48만원, 임차보증금 1046.85만원, 월세 42.88만원, 금융기관 부채는 297.5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.
- 먼저 ▲주거 부문에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2.52%가 '주거비 부담 완화'에 가장 많은 도움이 됐다고 답했고 ▲경제 부문에선 65.56%가 '생활에 전반적으로 여유를 갖게 된 것'을 큰 변화로 꼽았다. ▲생활 부문에서는 '심리적인 안정감(29.92%)'이 가장 높았고, 다음으로 '식생활을 비롯해 전반적인 면에서 개선을 경험했다(25.1%)'고 답했다.
 - ▲주거 부문에서 '주거비 부담 완화'에 이어 주거안정화에 도움(18.20%) > 장기적 주거상향 계획에 도움(13.84%) > 주거환경 긍정적 변화(13.42%) 순으로 만족했으며
 - ▲경제 부문에선 '전반적인 생활의 여유를 갖게 된 점' 뿐 아니라 저축·투자 등 자산형성 과정에 도움(28.78%)됐다고 답했다.

- ▲ 생활 부문에서는 '심리적 안정감'과 '식생활 및 생활의 전반적인 개선 경험' 외에도 문화 및 여가생활 확대에 도움(16.47%) > 학업 및 자기계발을 위한 지출 확대(14.68%) > 사회적 교제를 위한 여유(6.68%) > 생계형 아르바이트를 줄여 시간적 여유 확보(5.61%)도 뒤를 이었다.

□ '임대료 연체 경험'에 대한 설문에서도 월세를 지원받은 뒤로 임대료 연체 경험 없는 비율이 늘었으며, 3회 이상 연체 비율도 월세 지원 이후 1%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.

- 시는 '연체 경험 없는 비율'이 월세를 지원하기 전인 85.3%에 비해 약 10%p 높은 95.1%로 오른 것으로 보아 '청년월세 지원'이 주거비 연체와 같은 주거 불안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했다.

연체횟수	월세 지원받기 전 10개월	월세 지원받은 10개월
없 음	85.29%	95.14%
1~2회	10.27%	4.09%
3회 이상	4.44%	0.77%

□ 아울러 서울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최근 주거비 부담이 더욱 커진 주거위기 청년을 돕고자 지난 8월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'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'을 접수받고 있다. 신청은 복지포털 누리집인 <복지로(www.bokjiro.go.kr)>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.

-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~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가구 중위소득 60% 이하, 원가구(부모+청년) 중위소득 100% 이하인 경우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월 최대 20만원, 최장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.

○ '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'은 올해 8월~'23년 8월, 1년 간 한시적으로 추진돼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, 자세한 사항은 '복지로 누리집'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.

□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"여러모로 고단한 청년의 삶을 더 힘들게 하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작된 '청년월세 지원' 사업이 실질적으로 청년 생활에 활력과 윤기를 주고 있다"며 "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, 전문가 자문 등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더 많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겠다"고 말했다.

붙임1.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홍보용 이미지

<붙임1>

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홍보물 이미지

국토교통부

청년들의 홀로서기를 응원합니다

청년월세 특별지원

2022년 8월 22일부터
1년간 신청가능!

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이란?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

지원 대상
만 19세 ~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,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
※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

지원 한도
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
※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

지원 기간
신청 기간
2022.8.22(월) 부터 1년간

지급 기간
2022년 11월 ~ 2024년 12월

제외 대상
- 주택 소유자
- 직계존속·형제·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
- 공공임대주택 거주
-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
-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

소득·재산기준
- 소득: 원가구 중위소득 100%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%이하
- 재산: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천만원 이하
※ 청년가구: 청년 + 배우자 + 직계비속 +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'민법, 상 가족'
※ 원가구: 청년가구 + 1촌 이내 직계혈족(부모)

신청 방법
① 온라인 신청: 복지포털(www.bokjiro.go.kr) 혹은 어플리케이션
② 방문 신청: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
※ 사전 문의: 복지포털(bokjiro.go.kr), 마이홈포털(www.myhome.go.kr)

포스터